

# 각본 없는 공연...공감으로 치유 받다

한국심리드라마연구원 '공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공연 배우·대본 즉석에서 결정 관객이 배우로 나서 고민 공유



일일 배우로 무대에 오른 정씨를 위로하기 위해 관객들이 핸드폰 불빛을 켜는 장면. <한국심리드라마연구원 제공>

공연 포스터와 리플렛이 '이상'했다. 연극인데 주연배우도 대본도, 짜여진 각본도 없었다. 본 공연이 시작되자 주인공을 객석에서 즉석 선발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모두 주저하며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용기를 낸 세 명의 관객들이 배우 역할에 지원했다. 이들은 각각 소설가로서의 고민, 삶의 방향성, 사업 실패담을 간략한 시놉시스처럼 풀어냈는데, 다른 두 사람의 양보로 정모(55·장덕동) 씨가 이날 공연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정씨는 무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중년 남성으로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두 딸, 아내와 동반한 그는 지난 21년 5월 공모주 투자로 10억여원 손실을 입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 이후 반복되는 가정 불화로 전문 기관에서 심리치료까지 받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다.

"그동안 여유가 없어 가족들과 공연장을 찾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이 용기를 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저절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한국심리드라마연구원이 선보인 치유심리드라마 '공감'은 인간 내면심리를 예술공연 형식으로 만든 즉흥극이다. 1920년대 비엔나에서 심리극의 기원으로 꼽히는 '자발성 극장'이라는 연극을 창시한 모레노의 즉흥심리극을 떠올리게 했다. 연기자들이 맡고 있는 배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대본을 없앤다면, 관객과 배우 모두에게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공연 형태다.

연출과 진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우상 이 맡았다. 현재 밝은마음병원장이자 사이코드라

마 수련감독 전문가로,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 드라마학회장을 역임했다.

즉흥극의 시작은 예상치 못했다. 객석 맨 앞 줄에 8명의 보조 연기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정씨가 아내, 딸,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배우들을 선발했다. 정씨가 '사업에 실패해 10억을 날린 것 같은 배우'를 손가락으로 지명할 때는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실세 방에 살면서, 1997년 IMF때는 혼수 금가락지까지 팔아가며 마련한 중장년인데... 그결 한 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정씨는 빈 의자에 앉아 주식이 폭락하는 모니터 앞에서 하릴없이 앉아 있던 2021년 그날을 재연했다. 절망스럽던 순간을 이해해주는 아내, 그동안 데면데면 지내온 딸들의 역할은 보조연기자들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같은 장면은 심리치료에서 활용되는 '집단심리치료'나 '연극심리치료' 등의 학적 기법과도 맞닿아 있었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자 정 씨의 분신(보조연기자)은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무것도 덮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 씨는 울분을 토하다가 함께 누워 그(보조연기자)를 안아줬다. 수년 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스스로를 위로하고 처음으로 응서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부라보 부라보/ 아빠의 인생" 이를 응원하듯 객석에서는 '아빠의 청춘'이 울려 퍼졌다. 사전 협의된 바 없지만, 약속한 것처럼 모두가 함께 부르면서 '일일 배우'의 용기를 응원했다. 무대 위 정씨는 엉엉 울며 객석에 앉아있는 가족들 쪽을 연신 바라봤다.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정씨와 보조출연자들이 함께 '행복한 가족사진'을 찍는 장면.

"저랑 와이프는 양옆에 서고 우리 두 딸이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손은 '꼭' 맞잡아주세요" 정 씨의 디렉팅에 따라 네 명의 보조출연자들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했다. 무대 위에서 행복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 씨와 관객들은 함께 웃었다.

윤우상 연출가는 "마음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던 트라우마나 상처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한다"며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우리의 고민들이 즉흥적으로 공유될 때,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따뜻한 봄날 유채꽃밭을 걷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관객들이 흐드는 노랑고 흰 천을 배경으로 정 씨와 보조출연자들이 무대를 한 바퀴 순회했다. /최류빈 기자 rubi@

# 평범한 시어 속 상상의 즐거움

김숙희 교사, 시집 '국수와 소녀' 등 2권 동시 발간



현직 영어교사이자 시낭송가인 두 권의 시집을 동시에 펴내 눈길을 끈다.

공립 해남공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김숙희 시낭송가가 그 주인공. 김 교사는 최근 '국수와 소녀', '너무 한꺼번에 날아온 오후'를 시와사람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한 김 시인은 그동안 전국시낭송대회에서 13관왕을 수상하는 등 시와 관련한 연구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시인에 따르면 이번 시집은 6년 만에 졸업한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시절의 작품을 정리, 출간한 것이다.

두 시집은 평범한 속의 단순성으로 눈길을 끄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톱 던지듯이 내놓는 시어와 발상은 지시하지 않는 것을 더 상상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교하게 짜맞춘 연술이 아닌 자연스러우면서도 즉흥적인 화법은 행간에 다양한 상상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적 효과를 발한다.

'국수와 소녀'의 해설을 쓴 김종 시인은 "리듬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응용할 수 없는 사람은 시 창작

과 낭송이 불가능하기에, 김숙희 시인 낭송의 뛰어난 음악성이 그대로 창작과 연결되어 두 권의 시집을 한꺼번에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너무 한꺼번에 날아온 오후'의 해설을 쓴 강경호 시인은 "자신의 낯설고 참신한 언어 구사로 인해 미학적인 측면에서 김숙희 시인만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김 시인은 "앞으로도 문학과 문화예술의 비상을 위해 도전을 할 생각"이라며 "나이에 굴하지 않고 또 하나의 문화예술계 관련 박사학위를 꿈꾸며 계속 연구적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행복을 연주하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다문화M오케스트라, 다음달 4일 북구문화센터서 정기연주회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 다문화M오케스트라의 제1회 정기연주회. <다문화M오케스트라 제공>

여러 빛깔의 '다문화'가 오케스트라 선율을 입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술 축전.

(사)다문화M오케스트라(대표 정수복·M오케스트라)가 오는 4일 오전 11시 'M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공연은 광주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음악'을 매개로 환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기획 및 해설은 M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유정이 맡았다. 2010년 다문화음악학교를 개설한 M오케스트라는 광주시 다문화 지원사업 등에 선정돼 14년간 무료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이 막을 연다. 이어 사티와 차이콥스키 곡 '왈츠 메들리', 비제의 오페라곡 아틀라스의 여인 중 '메뉴엣',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외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와 영국민요 '그린슬리브스',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호남예술제 은상을 수상한 와베미나(여·전남예고3)의 바이올린 협연도 들을 수 있다.

특별출연하는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조정희(호남대) 교수의 지휘에 맞춰 '모스크바의 밤', '춘천가', '홀로 아리랑'을 부른다.

김유정 예술감독은 "음악을 매개로 광주 속 다문화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연주회를 마련했다"며 "광주 시민들께서 이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고, '공감과 연대'라는 공연 취지에도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M오케스트라는 오는 1일까지 '다문화가족 사진전'도 열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을, 인문학과의 만남

11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정기강좌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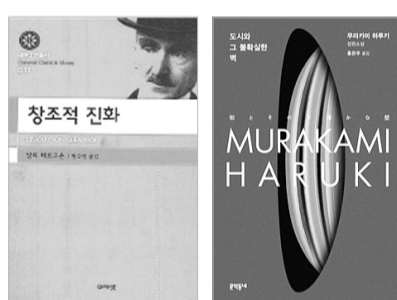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08기 정기강좌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오후 2시)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먼저 월요일(6, 20일)에는 서명원 교수가 '신체화된 마음에 관하여'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목요일(9, 23일)에는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맑스·엥겔스·공산당 선언'을 토대로 강독을 하며 신광용 책임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민주시민교육 DB작업-5·18과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금요일(3, 17일)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무라카

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 및 이야기를 나누며, 이항준 교수는 금요일(10, 24일)에 '민주시민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일요일에 진행되는 '인문택시' 시간에는 진정한 이사와 참석자들이 '가을에 떠나는 인문 여행'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도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진행된다.

목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후 7시) 각각 여행 인문학(여행 도슨트, 지속 가능한 길 위의 꿈), 책글동아리(피트 데이비스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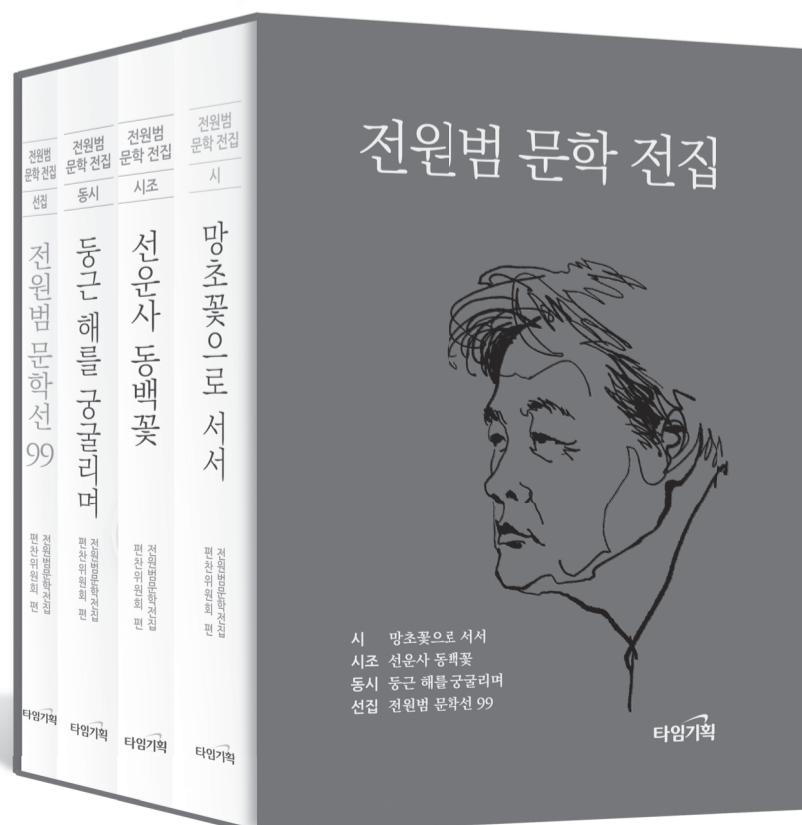


독립영화제(인문학으로 풀다), 철학스터디(베르그송 '창조적 강독')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목요일(오후 4시)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민주시민교육 강좌는 무료)이며 강좌별 5인 이상 등록 시 설강, 네이바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댓글로 신청.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등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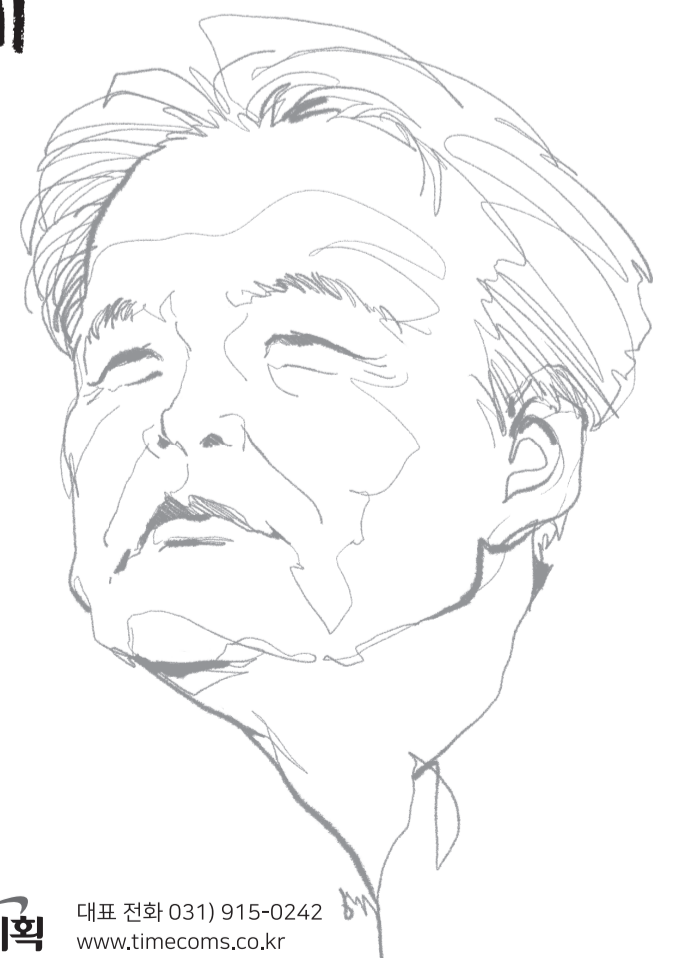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등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